

# 백운계곡 주변경기 활성화 청신호

## 제1회 대한민국 술 축제 盛了



제1회 대한민국 술 축제에서 관광객들이 명주 시음을 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도평리 백운계곡관광지에서 국내 전통주 업체들의 자구노력을 돕고 47번 국도가 지나가는 포천시 일동면과 이동면 일대의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제1회 대한민국 술 축제'를 개최했다.

'술과 갈비'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는 전국의 22개 전통주 업체와 포천지역 8개 막걸리 업체 등 30여 업체가 참가해 약 200종의 명주를 선보였다.

특히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당초 예상했던 2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10만여 명이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여들어 최근 침체돼 있는 백운계곡 주변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축제 기간 중, 조선시대 고을의 유생들이 해마다 학교나 서원에 모여 예의와 절차를 지키며 술을 마시던 '함음주례' 시연이 펼쳐졌으며,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공연과 타악 퍼포먼스,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도 마련됐다.

축제 주무대 주변으로 설치된 무료시음장과 특산물장터, 전통주막

거리, 그리고 술을 주제로 한 노래 유생들이 해마다 학교나 서원에 모여 예의와 절차를 지키며 술을 마시던 '함음주례' 시연이 펼쳐졌으며,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공연과 타악 퍼포먼스,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도 마련됐다.

축제 주무대 주변으로 설치된 무료시음장과 특산물장터, 전통주막

원 배치, 포천시 모범전자화원과 이동면 자율방범대원들의 교통안내, 취객에 대한 시음 제한 등 준비위원회의회의의 빈틈없는 취객관리 대책으로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 참가인원 뿐 아니라 축제 운영 면에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개성인삼' 우수성 알렸다

개성인삼축제 20만명 찾아 이틀간 12억 매출 기록

포천개성인삼축합(조합장 조남실)은 지난 22일과 23일 2일간 43번 국도변 개성인삼축합대광장에서 2005 개성인삼축제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개성인삼을 브랜드화하고 개성인삼의 새로운 원산지로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9개 시·군 인삼작목반 및 인삼연구회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첫째날인 22일은 '환생'을 주제로 포천종교 풍물패공연을 시작으로 개성인삼학술포럼,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식전공연, 개막식, 人形대상선발대회, 화합과 번영의 장, 개성인삼가요제 등의 이벤트와 상설전시 및 판매장터가 상설 운영됐다.

둘째날인 23일에는 '도약의 날'을 주제로 인라인 시범, 포천가전제네라리 공연, 청소년댄스경연대회 품바공연 등 이벤트와 판매장터 및 먹거리 장터가 운영됐다.



개성인삼축제 기간 중 체험행사로 마련된 인삼생만들기 체험장이 전시된 인삼병을 한 시민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축제에서는 상설행사로 개성인삼전시관, 경희의료원의 한방부진 진료, 포천시 전시관, 개성인삼가공식품관 등의 상설전시장 운영과 인삼요리 시식코너, 약초판매점, 먹거리장터, 농특산물 판매장터 등 먹거리 및 부대시설이 운영됐다. 또 관광객과 고객들을 위한 인삼요리 강습, 인삼병만들기, 가훈씨주기, 인삼 캐기 및 재배농가 체험, 인삼우유 시음회 등의 체험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총 43개 부스 중 22개의 수상부스가 설치됐다.

조남실 조합장은 "개성인삼은 포천·연천지방을 중심으로 한 수이북 지역의 위치와 기후 및 토질이 개성지방과 거의 같아 개성인삼의 최대 생산지로 꼽히고 있다"며 "양적모양의 식재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중 체형이 가장 우수하고 내용 조성이 충실해 고유의 향이 짙고 사포닌 함량이 많아 흡수 수율이 가장 높은 6년근 인삼이 바로 개성인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인삼조합과 포천시는 "이번 축제기간동안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 및 판매객이 20여만명이고 약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내년에는 올해의 성원에 힘입어 행사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성인삼조합은 연간 70여톤의 수삼 생산과 200여원의 가공식품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역사와 전통의 경기미협 초대전

11월5일부터 6일간 포천반월아트홀 개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미술협회 회원 초대전이 오는 11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된다.

59회째를 맞는 이번 초대전은 경기미술협회 200여명의 250여점과 포천지역회원 10여점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원초대전은 2천 500여명이 소속된 경기미협 미술인의 밤도 함께 개최된다.

미술인의 밤 행사를 위해 포천지역에서는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양주승)를 구성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들위해 행사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준비모임을 갖고 회원별 행사개회에 따른 준비사항을 확인했다.

한편 양주승 행사추진위원장은



오는 11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될 경기미술협회 회원 초대전을 위해 지난 25일 행사추진위원회가 준비모임을 갖고 준비사항을 확인했다.

"경기미협 초대전 개최에 적극 협조 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행사추진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전

통있는 미술대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 선진문화원 교류협력 통해 발전 모색

포천문화원 임·회원 공주문화원 견학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27일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교문, 자문위원, 임원, 회원 등 1백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진문화원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전국문화원연합회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주문화원을 선정했으며, 선진문화원과 교류협력력을 통한 발전적인 방향 모색 및 장래 전망을 점검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공주문화원은 지난 1954년

12월 설립 개원되어 50년의 전통을 가진 문화원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우수문화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의 인사와 정재욱 공주문화원장의 환영사 및 연혁, 주요추진사업 설명, 두 문화원 간 기념품 교환, 원사견학 순으로 진행되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포천문화원은 이번 선진문화원 견학이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과 더불어 지역문화사업 및 문화원 발



포천문화원은 지난 27일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선진문화원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했다.

전을 위한 회원들의 참여 의욕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및 선진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韓國의 선비정신 · 13

# 공직자의 귀감이요 청백리였던 오리(梧里) 정승 이원익 1547년(명종2) ~ 1634(인조12)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지나호에 이어서〉  
광해군이 즉위하자 한때 이원익은 영의정, 이덕형은 좌의정, 이항복은 우의정에 임명되어 광해국 초기의 정치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차츰 당쟁의 소용돌이는 광해군의 통치를 어지럽혀 갔다. 이 때문에 광해군의 패륜행위가 나타나므로 이를 막고자 상소를 했다가 대역으로 몰린 이덕형, 이항복 등에 대하여 그는 다시 상소문을 올려 그들로 하여금 억울한 죄를 달게 하였다. 그후 광해군이 왕대비의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고자 하니 "윤기의 변 마땅히 죽음으로써 투쟁할 것"이라 하며 왕의 패륜을 탓하고 극력 반대하였다. 그일로 말미암아 홍천으로 귀양 가게 되었고 다시 여주로 옮겨지는 고초를 겪었다. 그가 홍천으로 귀양가게 되었을 때 관동지방은 큰 가뭄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오자마자 큰 비가 흠뻑하게 내리 그 고장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서 그 비를 오리정승이 가져온 상공우(相公雨)라고 불렀다고 한다.

안의 모든 백성이 서로 바라보며 이상공이 오신다고 기뻐하였다. 이원익의 모습이 한층 빛나게 나타나는 것을 인조반정 후에 있는 그의 행동이었다. 왕대비인 인목대비가 폐위된 광해군을 죽이고자 하였을 때 모든 대신들이 찬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복하여 아뢰기를 "광해는 스스로 천륜을 끊다가 그 응보로 폐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를 죽이면 전에 노신이 그에게 섬긴일이 있는 즉 부득이 관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고 아뢰어 대비의 노여움을 거두게하고 광해군의 목숨을 보전케 하였다. 일찍이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유배까지 당하는 고초를 겪었지만 그는 그것을 조금도 개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으로서 다른 사람이 감히 엄두도 못낼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하였던 것이다.

그에 대한 신앙은 일반 백성에게 널리 퍼져서 일반들에게도 막강한 것이었다.

김류, 이귀 등이 광해군에 대한 반정모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원임 대신인 그를 찾아가서 그 뜻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묵묵부답으로 김류와 장기간 두었다. 갑자기 '장군'을 부르며 상대방의 '장'을 떨어뜨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두사람은 힘을 얻어 인조반정(仁祖反正)을 감행하였다는 일화를 보아도 그가 모든 상하 관민에게 얼마나 신뢰받는 덕망을 지녔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은 강화로 난을 피하고 그는 도체찰사로서 임무를 다하고 강화가 성립되어 왕이 환궁하자 왕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니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마침내 그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의 나이 80이었다.

향리로 돌아간 후 8년째인 1634년(인조12) 세상을 떠났다. 왕은 도승지를 보내 조문케 하였다. '영종추부사의 초상에 집이 가난하여 예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에 장의는 국가에서

1623년 새 임금이 된 인조의 부름으로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그의 나이 74세이었다. 그가 귀양살이에서 부임일이 오르니 장

관장하여 예장토록하고 특별히 세자로 하여금 조문케 하였다.

그는 인조 묘정에 배향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문충(文忠)의 시호를 받고 여주 고산서원, 시흥의 충현서원, 완평영당, 안주의 청천사에 배향되었다.

이원익은 그저 참백한 관리로만 자족하고 만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에게는 시대를 앞서가는 진취적인 안목이 있었다.

그의 경세가(經世家)로서의 품모는 조선 후기 사회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시도한 것은 철저한 위민사상의 발로였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뜯어고쳐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노력이었다.

그의 유훈은 그 시대 사람이거나 그 이후의 기록을 보아도 그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는바 공의 금도(嚮度)가 정하고 밝아 표리 가 순수하며 한결같은 평생에 언거기색이 은화하여 얼골빛과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으나 큰 일을 당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높은 산악과도 같았다. 어느 재상이 말하기를 "누가 오늘날 성인이 없다고 하던가? 원경(完平)은 참성인이요 라고 하였다."

공이 세 임금이 섬기는 동안 시종 한바탕이었으며 충성과 공로는 정란중 들어났고 절의는 혼란할 때 나타났다. 임금을 도와서 국운을 새롭게 하였으니 공로는 사직(社稷)에 있고 도(道)는 강상(綱常)을 부지케 하였다. 이는 그가 성취한 큰 것이었다. 진정한 선비정신의 발로이었다.

## “우리 손으로 직접 수확했어요”

### 고향의 정감 찾기 행사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서울시 노원구의 부녀회원 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부녀회원들은 포천시 참수련 해산전통장 사업장을 방문해 우리콩을 이용한 두부 만들기과 청국장 만들기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순

두부찌개와 함께 시골의 인심을 맛보았다.

또 오가리 사과농장에서 직접 사과를 따고 스타리버섯 농가에서 재배·수확과정을 체험하면서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과 농촌 및 농업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도시 주부들을 맞은 지역 실전농장 사업장을 방문해 우리콩을 이용한 두부 만들기과 청국장 만들기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순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서울시 노원구의 부녀회원 50여명을 초청해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했다.

번 초청행사가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b>초대 漢詩</b>		<b>願南北平和統一 明成聲愷情</b>	
(원남북평화통일)		(명성성명정)	
<p><b>至願東邦吉兆明</b>(지원동방길조명) 우리나라에 길조가 이르기를 바라며</p> <p><b>助長宇內平和氣</b>(조강우내평화기) 나리에 평화의 기운이 일고</p> <p><b>瑞運將輝希濟士</b>(서운장휘희제사) 지식인은 서운에 비취기를 바라고</p> <p><b>分疆合併知無幾</b>(분강합병지무기) 분강통일이 얼마 안될 날리라</p>	<p><b>祈天統一大功成</b>(기원통일대공성) 하늘께 통일에 큰 공이 이루어지기를 빈다</p> <p><b>喚起人間互諒聲</b>(환기인간호상성) 국민은 서로 양보할 뜻을 일깨워야 한다</p> <p><b>春風更到所樂畝</b>(춘풍경도소여명) 백성은 춘풍이 일기를 호소한다</p> <p><b>苦待交歡血肉情</b>(고대교환혈육정) 일국의 정 교원하기 고대하네</p>	 <b>松園 리효종</b> 포천한시사 대표	

<b>초대 詩</b>		<b>바다를 춤춤히 못 박은 건 비였네</b>	
<p>어슴푸레한 바다 위로 노란 짐승들 등그네 그 너머로 점점점점 아침을 퍼져오네 시래솔 화을 맞추어 바다가 파배기처럼 파도를 밀어 기쁨에 튀겨내네 불현듯 물먹은 비람 휘돌아 모래 위 갈매기들 기우뚱 품을 둘러네 꿀꺽꿀꺽 까치놀 마저 모로 누워 버리네</p>	<p>바다가 불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불꽃과 놀자, 폭죽 터트리지만 별똥가루 습기에 움츠린 듯 몇 날의 빛으로 찾아들며 순식간에 피다지네 몸뚱어 있으면 불붙일 수 없는가 알았네, 물방울에 햇살이 격이어도 세월은 싸야하니 비 실은 비람으로 흘렀네</p>	 <b>장 현곤</b> 솔모루 문화회장 포천제2인명영위원장	



**수평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47)**

### '높임말' 과 '결말' 이야기

우리의 특징은 존댓말과 결말이 많고 꾸밈말 또한 많은 것이 특징이어서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찬사를 듣는다. 존댓말은 존경 또는 높임말이라고도 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말은 하대어 낮춤말이라고도 한다. 극존칭(아주 높임말), 존칭(높임말), 평어(보통말)이 있는데 경어(높임말)라는 말이 평상 용어로 사람을 받는다.

네고향 포천의 어느 마을에 새로 시집을 떠느라 있었는데 친정에서 규방수업을 어머니로부터 받으면서 존칭에 대한 공부를 엄격히 받고 시집을 왔다한다.

그래서 하루는 나무를 해서 땀감을 부엌으로 옮기는데 보니 시아버지 머리 위에 가랑님이 붙어 있는 게 보이진 않는가? 이에 놀란 며느리가 말했다.

"아빠님 머리맡에 검붉님이 올라 앉으셨습니까...?"

"어!! 그렇구만...?"

하루는 사람방에 매달렸던 메뚜기가 떨어져 낮잠을 주무시던 시아버지 얼굴에 맞아 그만 시아버지가 불귀의객(不歸之客)이 되고 말았다. 매우 덩이가 시아버지를 죽임의 길로 몰고 가 암사시진 참극을 맞아 가족은 물론 온 마을이 온통 슬픔에 잠겨 떠들썩하였다.

"어찌 그런 참극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 말이나?"

피투성이 얼굴을 한 시아버지 시신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물었다.

"아니, 글썽 들어보세요. 위에 서는 메뚜기가 내리치시고 아래에서는 토막(나무베개)님이 치치시니 살아 남을 징비님인들 계셨겠습니까?"

하더라는 말이 전해 온다.

또, 이 며느리는 결말 즉, 속담을 매우 잘 썼다고 한다.

'말 많은 집 장맛도 쓰다', '시어머니에게 역경나서 감이지 배매기 견어잔다', '다섯 사람의

험한 입은 범(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 '나무 접시 늦접시 될까?', '똥은 건드릴수록 냄새가 더 난다', '강물도 쓰면 준다', '소 같이 밟아서 쥐 같이 싸다', '굳은 땅에 불이 고인다', '오뉴월 불(火)도 쪼다 나면 서운타', '도마 위에 고기 칼 무서워하랴', '첫 정월엔 나는 버섯 먹지도 못한다', '계(契)타고 집 판다(술데없는 짓)', '돌담 배 부른 격'(술데없는 해로움)', '같은 값이면 은가락지 낀 손에 맞겠다'(꾸지람도 덕담 있는 스승에게 듣는 게 낫다는 뜻)', '고깔 뒤에 곤 형질'(불필요한 게 붙어 다닌다는 뜻) 등등 결말(속담)은 한문어 어원(語源)을 둔 것도 있고 순 우리 토종말과 관습에서 나온 속담도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하여 유식한 척, 잘 말 하는 척, 하는 것도 삼가야 할 일이라고도 하였다. 내 고향 선비들의 가르침이기도 한다.

필자 연락처 02-932-2434